

# 최근 활기를 띄고 있는 오리산업

## #타이틀

### 오프닝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한 상권입니다.

11월에 맞는 첫 번째 주말. 이제는 날씨가 포근하다고 해도 잠자리에서 일어나 방문을 나서면 싸아한 느낌이 들 정도로 공기가 차갑죠? 건강에 특히 조심하라는 경고같은 생각이 드는데, 특히 우리 농어촌에는 노약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구나 요즘은 아침저녁으로 기온차가 심하지 않습니까? 아침에 눈발으로 나가실 때 옷차림도 이런 날씨를 감안해서 춥거나 덥지 않게 차려입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1월 6일 토요일에 농수산 오늘, 먼저 주요 농수산물 소식부터 간추려드리겠습니다.

## #주요 농수산물 소식

### 주말기획

**[사회자]** 최근 오리산업이 활기를 띄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는 연간 생산액순위에서도 돼지고기와 쇠고기에 이어 닭고기와 비슷한 수준인 1조2천 3백억원 수준까지 올랐습니다.

물론 국민소득 향상과 외식산업발달로 인한 소비증가에 기인한 때문이겠죠. 아마 오늘도 주말을 맞아 외식을 하려는 분들 가운데 오리고기를 먹으려고 계획하신 분들도 많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농수산 오늘 주말 기획은 이 오리산업의 현황과 개선과제는 무엇이고 바람직한 발전방향은 어떻게 정해서 나아가야 하는지.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으로 마련을 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건국대학교 김정주 교수, 한국 오리협회 이창호 회장. 이렇게 두 분이 나와 계십니다.

최근 오리산업이 그야말로 날개를 단 것 같습니다. 해마다 생산액이 쑥쑥 오르고 있거든요?

**[김정주 교수]** 오리 생산액 추이를 보면 2003년 4,600억이던 것이 2006년에는 6,400억으로 늘어났고요. 2008년에는 1조를 넘어섰습니다. 지난해 생산액이 1조 2,323억원이었습니다. 금년 통계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약 1조 8천억원까지 올라가서 닭고기와 아마 비슷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죠.

**[사회자]** 이런 오리산업 현장에서 직접 오리를 사육하는 분들의 모임체가 오리협회 아닙니까? 오리협회... 연혁이 어떻게 되는지요.

**[이창호 회장]** 우리협회는 사육, 부화, 계열유통까지 포괄한 오리산업 유일단체입니다. 오리산업 종사자들의 대부분이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회원은 전업농이 대다수로 약 680명이고 협회는 오리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종사자들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설립 이후 20여년간 우리 오리산업은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해 왔고 그 결과 2009년 생산액이 1조 2,323억으로 농업생산액 중 7위를 기록하는 놀라운 성장을 이룩하였습니다. 올해는 1조 7,000~8,000억을 상회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사회자]** 거의 한 해에 한 50% 정도 이상 되나요?

**[이창호 회장]** 올해는 한 40% 정도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회자]** 처음 우리나라에 오리 사육이라는 것이 시작된 게 한 20여년 전이라고 보면 됩니까?

**[이창호 회장]** 네 맞습니다.

**[사회자]** 세월에 비해 상당히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이 전성기라고 할까요 아니면 아직 호황기가 오지 않았다고 봐야 할까요?

**[이창호 회장]** 지금은 산업의 정점을 기준으로 보자면 약 50% 수준에 왔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회자]** 지금 오리사육의 문제점 하나를 꼽자면 대부분이 오리농장을 하시는 분이 영세농이라는 것일텐데요.

**[이창호 회장]** 네, 많은 분들이 그렇게 보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웰빙비랍과 함께 오리고기에 대한 소비자들의 많이 개선돼 있고 소비가 꾸준히 늘고 있는 상태에서 사육마리수와 생산액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오리고기가 모자랄 정도로 소비가 늘어나 이슈가 된 적도 있습니다.

**[사회자]** 해마다 사육마리수와 생산액, 수요 모두 늘고 있다. 그런데 영세성은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한 부분인데요. 김 교수님?

**[김정주 교수]** 네 그렇습니다. 오리 사육가구수와 사육 수수를 비교해 보면 농가수가 2000년에는 약 13,000여 농가 정도 됐었어요. 그런데 2009년 지난해 통계로는 5,200농가로 줄어들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2,000수 이상 농가를 우리가 전업농이라 보고 그 이하 농가를 영세농이라 보는데 2천수 미만 농가는 12,460농가에서 4,400농가로 줄어들었고요. 오히려 2천수 이상 전업농가는 같은 기간에 500농가에서 800농가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영세규모는 줄어들고 전업농가는 늘어나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영세농에서 생산한 오리는 약 24만수 밖에 안돼요. 나머지는 800여호의 전업농에서 12,498천수를 생산했고 한 농가당 사육마릿수로 보자면 영세농은 농가당 평균 50수 정도 사육하는 것이고 전업농은 약 15,600수 정도 사육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리산업이 경제학에서 말하는 규모화가 아주 급격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사회자]** 시간이 해결해 주겠군요. 그럼 이 분들의 소득 수준은 어느 정도 인가요?

**[김정주 교수]** 네, 제가 지난해 오리협회 요청으로 연구 결과를 하나 발표했는데요. 소득을 잡는 게 상당히 어

렵습니다. 왜냐면 다른 축종은 통계청이 기장조사를 통해 통계를 내고 있는데 이렇게 성장중인 오리는 주요 축종으로 아직 인정을 받고 있지 못해 통계처리를 못하고 있죠. 그래서 설문조사를 통해 조사해 본 결과를 말씀드리자면 우선 오리농가는 2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계열농가가 있고 단독경영농가 이렇게 2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열농가의 평균 수입은 연간 한 4,700만원 정도 단독경영농가는 약 7,200만원 정도. 그래서 통계청이 2009년 축산농가 평균 소득을 발표한 것이 있는데요. 여기는 오리가 안 들어가 있겠죠. 약 4,876만원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계열농가는 우리나라 축산농가 소득과 비슷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단독경영으로 하는 농가는 상당히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회자]** 그러면 계열화농가는 전체비중이 어떻게 됩니까?

**[김정주 교수]** 그것도 통계가 잘 안잡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설문조사한 결과 약 80% 정도, 그러니까 약 80~85% 정도가 계열화농가를 하고 있고 나머지 15~20% 농가가 단독경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사회자]** 단독경영과 계열화 글썄요. 어느 쪽이 더 농민들을 위해 이상적인 시스템인가는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

**[김정주 교수]** 네,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사회자]** 예 알겠습니다. 소득수준은 상당히구요. 계열화가 80% 이상 차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회장님께 여쭙을까요. 지금 현장에서 부딪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어떤 걸 꼽아볼 수 있을까요?

**[이창호 회장]** 현재 대다수의 육용오리 축사는 비닐하우스로 보온덮개를 덮은 상태로 이루어져서 계절변화에 따른 생산성 변화가 큼니다. 특히 봄, 가을 대비 하절기와 동절기에는 생산성이 저하되어 출하일령이 지연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축사시

설 현대화와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한 대외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것이 오리산업의 큰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현대화에 있어서 농가의 부담완화를 위해 정부의 보조비율 상향 및 용자비율 하향 등의 지원도 절실한 상황입니다.

현재의 출하일수 43일을 2일만 단축한다면 5,000수 사육규모의 농가의 경우 연 38백만원의 순수익이 발생할 것이라 추정되고 있습니다. 또 모든 축종이 그러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바로 질병예방이죠. 질병의 예방을 위해서는 농가의 의식개선이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단위 면적당 적정사육기준을 준수, 또한 주요 질병의 예방접종에 있어서는 농가의 비용부담을 위한 국가보조가 필요한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사회자]** 계절적인 요인들도 많이 작용하나요?

**[이창호 회장]** 네 많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겨울에 11월 이후부터 3월까지의 특별방역기간이라 해서 차단방역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사회자]** 정부지원 말씀하셨는데요. 김 교수님 사육측면에서의 문제점도 있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김정주 교수]** 아까 언급한 연구결과를 보면 농가대상 설문조사에서 요즘 가장 애로사항이 뭐냐고 질문했을 때 가장 높게 나타난 응답이 계열업체와의 갈등관계다. 이렇게 답을 했구요. 그다음에 자금이 부족하다. 그다음에 오리가격이 불안정하다. 이것은 단독경영농가가 아마 응답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회장님께서 조금 전에 언급하신 방역관련 문제인데, 오리는 조류인플루엔자에 보균자를 갖고 있어도 원체 강한 체질 때문에 잘 죽지 않습니다. 닭의 경우는 금방 죽는데 말이죠.

그래서 철저한 방역을 하지 않으면 아주 심각한 문제가 온다. 다른 축종으로까지 번지니까요. 그래서 이 설문조사에서도 몇 가지를 질문해 봤어요. 새끼오리에 대해서 백신을 실시하느냐라고 물어봤더니 79%가 아직 안한다고 얘기를 했구요, 축사입구에 소독조 설치했느냐는 질문에 24%가 아직 안했다고 응답을 했

습니다. 그리고 방역·질병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지 질문했는데 한 20%가 아직 안하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런 것을 뒤집어 생각해보면 이 회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사육농가의 방역에 대한 인식이 아직도 철저하지 못하다. 그래서 정부에서 강력한 행정 지도라든지 리더십을 발휘해 농가들이 자발적으로 이런 방역활동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네. 그러면 이창호 회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창호 회장]** 현재 2009년 6월 오리 검정을 위한 법안이 마련돼 있고 오리협회가 검정기관으로 지정돼 일반검정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능력검정을 위한 기반시설을 갖춰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검정사업이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자체와의 유기적인 관계가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종축문제에 있어서는 국내산 종축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국내에서 사육하는 오리의 90% 이상이 페킨종 오리인데 종오리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다보니 종오리 수급안정에도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자]** 페킨오리라고 하면 중국종자입니까?

**[이창호 회장]** 원래는 중국종자죠. 그런데 이 종자를 영국과 프랑스에서 개량하여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리산업 종사자들이 뜻을 모아 원종오리 GPS 농장을 만들었습니다. 올 연말쯤 완공이 돼서 국내 오리산업 종사자들에게 우리 PS를 공급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질병에 대해서 우리 협회는 AI 상황실 운영하여 상시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AI에 대해서는 정기예찰과 검진이 이루어져 어느정도 방역체계가 갖추어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타 질병도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AI뿐만 아니라 살모렐라, 오리바이러스성 간염 등과 같은 오리 질병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회자]** 유통 측면의 문제는 없나요? 김 교수님.



**[김정주 교수]** 우선 도압장이나 가공시스템을 현재보다 훨씬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구요. 전국 15개의 도압장이 있고 전부 HACCP을 도입하고 있지만 얼마나 충실히 지키고 있는지 점검을 수시로 해 볼 필요가 있죠. 그리고 도압장이 충청도와 전라도 지역에 밀집되어 물류 비용증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비측면에서는 외식산업 분야에서만 오리고기 소비가 이루어지는 것이 문제입니다. 즉, 가정소비가 안된다는 거죠. 오리고기를 구입하는 것부터 요리법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은 앞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일 것이고요. 가공식품도 더 개발해서 바쁜 맛별이 가정 등을 공략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회자]**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계열화 얘기 좀 더 들어볼까요 회장님.

**[이창호 회장]** 네 국내 오리도축장은 전국에 15개 운영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월평균 10만수 미만 도축하는 소규모 도축장 3곳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계열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계열화 사업체 중 도축장을 운영하는 11개업체의 위탁농가수는 540여 농가로 전체 계열사 위탁농가에 80%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열화에 의한 위탁생산은 전체 생산에 80~90%정도로 계열위탁에 의한 생산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자]** 오리의 계열화는 어떻습니까? 육계계열화하고는 시스템적 면에서 비슷한가요?

**[김정주 교수]** 네 비슷합니다. 이번에도 경영실태 조사 결과 계열형태가 81.3%, 단독경영형태가 18.7%로 나타났구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오리사육의 가장 큰 애로점이 계열사와의 갈등 관계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면 육계와 같이 심하지는 않지만 계열업체 불씨는 안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것 같구요. 계열사업에 참여하는 농가의 이익에 영향을 주는 것이 뭔가 분석을 해보니 사료와 새끼오리였습니다. 뒤집어 얘기하면 계열업체에서 좋은 사료를 제공하면 농가 소득이 높아질

수 있고 나쁜 사료를 받으면 소득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새끼오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계열업체에 결국 농가소득이 달려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육계분야에서도 사료나 병아리 품질에 대한 인증제를 만들자 이런 얘기는 오가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것이 그리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면 닭이나 오리가 병아리를 낳는 시점에 따라서 병아리의 생산성이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도 엄마의 나이에 따라 아기의 건강이나 지능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닭이나 오리도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료도 어떤 옥수수를 쓰느냐에 따라 상당히 질이 달라질 수 있죠. 일률적으로 동일한 품질의 사료를 만들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사회자]** 자 그럼 여기서 현장의 오리사육농가 한분을 만나보겠습니다. 전라남도 보성군 득량면에서 오리사육을 하시는 정정우농업인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리 사육규모는 어느 정도이신지요?

**[전남 정정우씨]** 약 15,000수 정도 됩니다.

**[사회자]** 그럼 꽤 많으시네요. 그럼 1년에 얼마나 출하시는거죠?

**[전남 정정우씨]** 1년에 6~7회 정도 출하하니까 약 9~10만수 정도 출하합니다.

**[사회자]** 네. 오리사육 시작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전남 정정우씨]** 2000년도에 시작했습니다.

**[사회자]** 처음 시작하실 때보다 지금 엄청나게 성장을 했지요?

**[전남 정정우씨]** 그렇죠.

**[사회자]** 그러면 오리사육을 시작하신 계기가 뭔지요?

**[전남 정정우씨]** 네. 처음에는 복합영농을 했었습니다. 처음에 시설채소를 하다가 2000년도에 시설채소가 폭락하면서 그걸로는 경쟁력이 없다고 판단해서 우연히 오리사육 쪽에 눈을 뜨게 됐습니다.

**[사회자]** 그때만 해도 한창 초창기였을 텐데요. 지금 맞

고 있는 오리산업의 호황, 피부로 지금 느끼고 계시죠.

**[전남 정정우씨]** 작년부터 올해 수직상승하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죠.

**[사회자]** 그렇다면 주변에서 오리사육을 하려는 농가도 많겠어요?

**[전남 정정우씨]** 그렇죠. 많이 있는데 환경문제나 민원 사항이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하고 싶어도 축산이 진입하기 어려운 실정이 있습니다.

**[사회자]** 그렇군요. 지금까지 경험으로 미루어볼 때 어떨습니까. 오리사육은 어떤 요인 때문에 실패를 하던가요?

**[전남 정정우씨]** 관리부족이죠. 그리고 대부분 처음이야 쉽죠. 사육하면 할수록 모든 가족이 그렇지만 알면 알수록 힘든 겁니다. 그만큼 연구도 많이 해야 하고요.

**[사회자]** 네. 대부분의 오리사육농가가 한 80% 이상이 계열사를 통해서 도압장으로 출하를 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정선생님은 어떠세요?

**[전남 정정우씨]** 저도 계열로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자]** 네. 그러면 소득은 괜찮으신 편인가요?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전남 정정우씨]** 그렇죠. 그런데 장단점을 얘기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사육실적에 따라서 시기에 따라 수입 단가는 또 틀리고요. 농가 수수료 자체가 차이가 많습니다.

**[사회자]** 구체적으로 어떤 장단점이 있던가요?

**[전남 정정우씨]** 네 장점이라고 하면 출하시 유통 및 판매에 대한 부담이 없고요. 계약조건에 따르는 하지만 보통은 계열사에서 보편적으로 계열사에서 새끼오리와 사료를 공급하기 때문에 비용의 부담이 적은 편입니다. 단점은 계열사의 여건이나 시장전체의 수급여건에 따라 입식시기와 수량이 조정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사회자]** 오리는 닭과 같은 다른 축종과 구별되는 특징이 있다면서요.

**[전남 정정우씨]** 네 다른 축종에 비해서 해독능력이 좋

아 질병에 강한 능력이 있습니다.

**[사회자]** 그래도 AI같은 것이 한번 휩쓸고 지나가면 피해가 엄청나지 않나요? 그런 질병, 방역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세요?

**[전남 정정우씨]** 저희 같은 경우는 매주 소독하는 날을 정해서 축사 내부를 철저히 소독하고, 인원이나 차량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도록 시설을 해두었으며, 출입시 반드시 소독하고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AI 정기검사도 받고 있고요. 오리가 사료를 잘 먹는지, 죽은 오리가 없는지 수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사회자]** 지금까지 현장에서 오리를 오랫동안 사육하고 계신데요. 당국에 바라고 싶은 점, 아쉬운 점 한 마디 해주시죠.

**[전남 정정우씨]** 네 오리는 시설에 따른 생산성이 많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축사시설현대화 사업 등 지원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자]** 네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보성군 득량면의 정정우 농업인이었습니다. 자 이 말씀 들으시면서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교수님

**[김정주 교수]** 네 우선 시설현대화가 생산성 향상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 그런 말씀인데요. 지금 대부분의 농가들은 비닐하우스에 보온덮개를 덮는 형태인데 환기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 호흡기 질병이 많이 올 가능성이 있고요. 설령 용자금 지원 등을 많이 해준다고 해도 농가부채가 많이 늘어나는 것 때문에 현재 상황으로서는 진퇴양난인 상황입니다. 농가 지원도 중요하지만 회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니까요. 그것이 어려우면 계속 부채로 남게 되죠. 특히 오리 소비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지난 94년에 0.3kg에 불과하던 소비량이 2009년 통계로는 2.1kg으로 늘었거든요. 무려 7배가 늘어났어요.

그 다음에 소비행태도 과거에는 오리탕 중심이었는데 요즘에는 구이 형태로 바뀝니다. 특히 진흙구이라는

상품이 나온 이후로 이 소비가 엄청나게 늘고 있고 최근에는 훈제제품에 대한 소비가 굉장히 늘어났고 업체들도 훈제제품 생산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리소비가 과거에는 계절적으로 차이가 많이 있었는데 요즘은 계절에 따른 변화가 거의 없어져 버렸어요. 연중 소비가 된단 얘기죠.

이런 등등을 고려했을 때 앞으로 오리산업은 크게 성장할 수 있는 분야기 때문에 정책적인 배려라든가 이런 것이 뒷받침 되지 않으면 좋은 기회를 놓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회자]** 네 오리소비가 동서양을 막론하고 큰 시장이죠. 중국도 마찬가지로요. 오리 수출할로는 어떨까요?

**[이창호 회장]** 예. 당연합니다. 어느 산업이나 마찬가지로 시장확대를 위해서 수출은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오리고기 수출은 2000년 이후부터 시작되서 2002년 600톤 가량을 일본에 수출하면서 확대되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 발생된 AI로 인하여 2006년까지 매년 300톤정도 수출을 하다가 2007년에는 1톤 미만으로 급감을 했고요. 2008년, 2009년은 오리고기 수출을 하지 못했습니다. 금년에도 현재까지 오리고기 수출이 없었습니다. 지난 9월에 홍콩과 일본에 수출이 재개되어 업체에서는 수출을 준비하고 있었으나 때마침 발생한 AI로 수출이 또 중단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 수출을 위해서는 우선 국내 AI 등 질병이 발생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요. 또 위생조건에 있어서도 개선될 과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를 들면 전남지역에서 저병원성 AI가 발생하면 타 지역에서라도 수출이 가능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지역적으로 거리가 있는 경우는 국제기구에서도 인정을 해주나요?

**[김정주 교수]** 해달라고 건의는 하고 있지만 그것이 반영이 되지 않는거죠. 예를 들면 중국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큰 면적에도 불구하고 중국 어디선가 발생하는

중국 전체가 금지돼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정부는 기를 쓰고 위생조건을 변경하려고 하고 있죠. 그것을 이제 지역화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중국에 비해서 작기 때문에 더욱 어려움이 있죠.

**[사회자]** 그런 면에서 정부의 지원이 많이 필요할 텐데요. 회장님께서 정부에 바라고픈 얘기 좀 해주시죠.

**[이창호 회장]** 오리고기 수출과 소비확대를 위해서는 사실상 닭, 돼지, 소가 아닌 다른 축종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현재 오리산물의 소비확대를 위한 기능성제품 및 제품개발연구가 정부의 기술연구과제로 선정되어 한국식품연구원과 함께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다양한 오리제품의 개발로서 오리의 수출 및 소비확대의 발판이 마련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오리고기의 기호성 개선, 새로운 요리방법, 개발된 요리를 통한 프랜차이즈 외식산업 시스템확립 등은 오리 소비확대의 토대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질병의 근절이 오리산업의 가장 중요한 숙원사업인데 비해 정부의 소독시설 및 소독약품의 지원은 미비한 실정입니다. 질병은 예방에 그 의미가 있으므로 오리산업의 호황기인 이때 질병예방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농가의 철저한 방역의식 제고 및 질병예찰활동 등 위생관리를 위한 의식전환이 절실한 상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사회자]** 사육과정에서 방역대책을 많이 강조해 주셨는데요. 그럼 여기서 이런 오리산업, 기타가금산업을 총괄하는 곳. 농림수산식품부 변동주 담당관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리산업이 1조 2,300억 원을 넘어가는 주요산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기타축종이예요. 분리기준도 좀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요?

**[변동주 사무관]** 말씀하신 대로 오리산업은 지금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오리산업



의 이러한 양적 성장에 걸맞게 제도적인 부분을 보완해 나가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오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사하는 기타가축통계로 분류돼 있어서 1년에 한번씩 통계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통계청과 협의를 해서 주요가축통계에 포함시켜 분기별로 통계자료를 조사해서 농업인들에게 제공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금년도 9월부터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협의를 해서 축산관측 품목에 오리를 포함시켜 사육동향등을 분석하여 농가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회자]** 향후 정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육성책들, 어떤 게 있나요?

**[변동주 사무관]** 과거에는 오리산업에 대한 정부정책이 다소 미흡한 것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오리산업에 대한 정책을 강화해 나가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 서너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우선 오리농가들의 시설이 대부분 열악합니다. 이러한 사육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2009년부터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을 통해 시설개선을 진행하고 있구요. 오리산업이 계열화사업 방식으로 진행이 많이 되고 있는데 계열화업자에 시설, 운영비 등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8월부터는 국내산 오리고기 우수성과 차별화를 통해 소비자 보호와 오리고기 소비확대를 위해 음식점에서 오리고기 원산지 표시제를 도입해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AI 방역 정책이라든지 다양한 정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회자]**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 변동주 사무관의 말씀 들어봤습니다. 먼저 이회장님 말씀을 좀 들어볼까요. 오리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서는 브랜드 고급화 등에 눈을 떠야겠습니까.

**[이창호 회장]** 아주 중요한 지적을 마지막에 해주셨습니다. 여러 계열업체에서는 훈제오리, 소시지, 오리 떡갈비, 육포 등 다양한 가공품개발에 자구적인 노력을 해왔고, 또 유통업계에서 브랜드 오리고기가 과거보

다는 많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타 축종들과 같이 브랜드 마케팅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만큼 오리 사업에도 포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회자]** 건국대 김정주 교수님, 마무리 말씀 해주시죠.

**[김정주 교수]** 네. 오리업계가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호황을 지키지 못하면 다시는 이런 기회가 오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소비자의 충성심이라는 것은 영원한 게 아니라 아주 변덕스럽습니다. 만약에 AI가 또다시 발생하면 소비가 급감할 것인데요. 그래서 돌다리도 두들겨 건너라는 그런 얘기처럼 앞으로 농장에서 식탁까지 완벽한 유통체계를 구축해야 되고 한치의 빈틈을 보여선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완벽하고 안전한 오리를 생산한다면 국내 소비는 계속 늘어날 것이고 수출길도 절로 트일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정부가 어렵게 원산지표시제의무화를 하긴 했지만 감시 기능이 뒤따라야 하거든요. 아무리 제도가 좋아도 감시가 없으면 지켜지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정부가 힘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자]**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주말기획으로 건국대 김정주 교수, 한국오리협회 이창호 회장과 함께 매년 빠른 성장세를 보이면서 거대시장으로 자리잡고 있는 오리산업의 현황과 개선 과제에 대해서 말씀 나누어 보았습니다. 두 분 오늘 대단히 감사합니다.

국내 오리산업은 90년대 경제성장에 힘입어 급성장한 축종 중 하나입니다. 현재도 농가의 상당한 소득원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강식품으로서 오리고기 소비촉진 나아가서 수출증대를 위한 노력이 꾸준히 이루어져서 더욱 성장하고 발전하는 산업이 됐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한상권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